

[문의]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김규식 010-6354-4801, kksik@kaif.or.kr
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010-5735-8847, limcy@kaeri.re.kr

신고리 5,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“안전, 신뢰, 수출로 보답하겠습니다.”

-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등 신고리 5,6호기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신고리 5,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모든 국민 여러분과 시민참여단이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, 그리고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.
-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은 시민참여단 여러분의 귀한 결정을 존중하며,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고리 5,6호기를 안전하게 건설해 저렴한 전기요금 유지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또한,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할 것이며, 체코 등 원전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
- 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원전 안전 운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우려 사항과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자력계가 힘을 모을 것입니다.
- 향후 원자력계는 공론화 기간 중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화합하고 건설 반대 측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- 다만, 이번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, 전문가 참여 제한, 흔들린 원칙 및 공정성 훼손 등 논란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합리적이고 성숙한 숙의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.